

KCC 챔피언 결정 1차전 막판 대역전 '통쾌'

오리온스 82대76 격파...오늘 2차전 결과 주목

5년 만에 KBL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주 KCC이스트가 홈에서 고양오리온스를 82대 76으로 격파하며 소중한 1승을 거뒀다.

역대 KBL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은 무려 73.7%에 달해 누가 1차전을 가져가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다.

경기 초반 극도의 외각슛 부진으로 인해 고점했던 KCC는 1쿼터에는 고작 7점을 올리는가 하면 2쿼터 종료시에도 26대34로 크게 뒤진 상태로 끝마쳤다.

공격은 답답했지만 정희재를 선발출전시켜 헤인즈를 막게 하는 추승균 감독의 수비전술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

헤인즈조 잭슨문태종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특점원들이 있는 오리온스를 전반 34점으로 묶은 수비는 후반 초반까지의 초석이 됐다.

반격의 시작은 3쿼터 종료 3분 남긴 시점부터 시작됐다.

계속된 외각슛 부재로 3쿼터 종료 3분 전까지 11점 차이로 크게 뒤지던 KCC를 구한 건 하버트 힘이었다. 하버트 힘은 2번의 연속된 3점 플레이로 점수차를 급격하게 줄이고 3쿼터 종료 직전에는 공격리바운드에 이은 콧배득점으로 상대를 턱밀까지 추격했다. 3쿼터 종료 점수 54대 59였다.

4쿼터는 김민규와 전태종의 가드진 쇼타임이었다. 에밋을 1대1로 막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더블팀 수비를 가던 오리온스 수비가 문제였다. 에밋은 자신에게 수비가 물린 상황을 영리하게 이용해 전태종과 김민규에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었고 두 가드는 11점을 합작해 경기종료 3분을 남기고 69대68으로 역전시켰다.

외각슛이 터지기 시작하자 인사이드의 공간이 넓어졌다. 하승진과 에밋은 인사이드 수비가 헐거워지자 적극적으로 1대1공격을 시도하며 6점을 만들어냈다. 오리온스는 이 시간동안 고작 1점 밖에 득점하지 못하며 추격의 의지를 상실했다.

대역전을 만든 추승균 감독은 인터뷰에서 "결론은 슈팅이 터지느냐 안터지느냐"며 "슛이 한 두 개만 터지면 오늘같이 편하게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앞으로 경기에도 슛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인터넷 예매가 2시간 만에 매진되는가 하면 당일엔 폴리에 현장예매 역시 경기시작 3시간 전에 완전 매진되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팬들을 위해 마련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주차장 응원석에도 빈자리가 없었다.

전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KCC가 다시 한 번 홈에서 열리는 21일 2차전역시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민규기자



손연재 리스본월드컵 리듬체조 개인종합 4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올 시즌 두번째 월드컵 개인종합 부문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손연재는 20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개인종합 및 종목별 예선 경기에서 리본 17.450점, 곤봉 18.000점을 받았다.

앞서 후프에서 18.500점, 볼에서 18.350점을 획득한 손연재는 총점 72.300점으로 개인종합 4위에 머물렀다.

지난달 에스포월드컵에서 개인종합 은메달을 따낸 손연재는 두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전날 후프 종목에서 자신의 생애 최고점인 18.500점을 받아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날 첫 종목인 리본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본에서의 실수로 17점대 점수를 받은 손연재는 곤봉에서 만회를 노렸으나 18.000점을 받아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메달을 놓친 손연재는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종목별 결선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민규기자

아스날, 원정에서 에버튼 제압...우승 희망 살려

승점 11 뒤진채 3위 유지 2위 토트넘과 승점 3 차이

아스날이 에버튼 원정에서 웃으며 타이틀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아스날은 19일 밤(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16승7무7패(승점 55)가 된 아스날은 한 경기를 더 치른 레스터 시티(19승9무3패·승점 66)에 승점 11 뒤진 3위를 유지했다. 2위 토트넘 핫스파(16승10무4패·승점 58)에는 승점 3 차이로 다가갔다.

최근 FA컵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아스날은 급한 불을 끄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스날은 전반 7분 만에 데니 웰벡의 골로 포문을 열었다.

메수트 외질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알렉시스 산체스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스를 배달하자 웰벡이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2분에는 알렉스 이와비의 골까지 터졌다. 이날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른 20세의 이와비는 일대일 기회에서 골키퍼 다리 사이를 노린 슛을 성공했다.

첼시는 웨스트햄 유니티티드와 2-2로 비



아스날은 19일 밤(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과의 원정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겼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는 0-1로 끌려가던 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터뜨리더니 후반 막판에도 페널티킥을 넣어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부임 후 13경기 연속 무패(5승8무)로 이 부문 EPL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 승리에 비해 무승부가 많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첼시는 10승11무9패(승점 41)로 10위를 지켰다. 웨스트햄은 13승11무6패(승점 50)로 5위를 유지했다.

/김민규기자

KBO 지난해 리그 총 결산 경기 간행물 발간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구본능)는 2016 KBO 연간 가이드북, 레코더북, 공식 야구규칙 등 경기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 KBO 연간은 지난해 KBO 리그를 총 결산한 도서다. 스포츠 전문기자들의 회고 기사와 함께 팀 및 개인 통산 기록, 주요 부문별 통산 순위, 정규시즌 720경기의 박스스코어 등을 담았다. 이 밖에 한국시리즈를 비롯한 포스트시즌 전 경기, 프리미어 12, 올스타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주요 경기를 결산하고, 지난 시즌 최고의 순간들을 화보로 실었다.

10개 구단 선수단을 소개하는 2016 KBO 가이드북은 KBO 리그 경기일정과 구단별 선수명단, 주요 프로필 등이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KBO 레코더북은 KBO 리그에서 나온 역대 주요 진기록들을 부문별로 상세하게 구분해 정리했다.

/김민규기자

지은희, 3R 단독 선두...7년만의 우승 기회 잡아

지은희(29·한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7년만의 우승 기회를 잡았다.

지은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와일드 파이어골프장(파72·6338야드)에서 열린 JTBC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치며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선두였던 김세영(23·미래에셋)을 한 타 차이로 따돌렸다. 그는 지난 2008년 6월 웨그먼스 LPGA에서 통산 첫 승을 거뒀고, 이듬해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후 7년 동안 우승이 없다.

전반에 3타를 줄인 지은희는 10번, 14번, 15번, 17번 홀에서 버디 행진을 이어가며 타수를 줄였다. 침착한 퍼트로 단 1개의 보기도 범하지 않았다.

/김민규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